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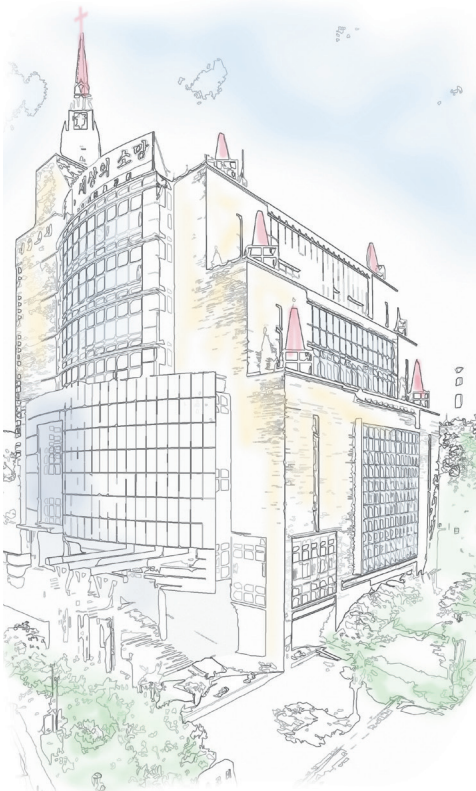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

(요 6:37)

이종윤 원로목사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아버지가 잡으셨던 생명을 지옥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이 생명을 받으신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 1. 구원의 창시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37절 상)

구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시작은 해놓고 나중에는 힘이 모자라서, 혹은 그 일에 별로 가치를 못 느껴서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거나 좌절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는 사람이 많습니 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모험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도 안 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한 사람이 순교의 제물로 죽으셨나보다”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의미,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그 구원을 시작하고 또 끝을 맺으시는 분이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 2. 효과적 부르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37절)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지배권 앞에 인간의 불가능은 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 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몸과 영혼이 나중에 새로 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완전 구원은 육신이 부활할 때에 이루어지지만 속사람은 이미 천국시민이 된 것입니다.

### 3. 거듭나는 역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볼 수 없다’는 말은 알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보려면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흠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교만하여 범죄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것처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받게 되고, 믿음의 알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영적 생명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요람입니다. 교회를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훌륭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영혼의 요람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무력무력 자라야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다시 파송하다

- 서초교회 당회장 강희창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

☎02)569-2077 FAX:02)569-2078 Homepage:sknp.or.kr E-mail:sknp@chol.com

서강남 : 제67-170호  
시행일자 : 2021. 3. 23.  
수신 : 서울교회 당회  
제목 : 임시당회장 파송의 건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귀 교회에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장을 선정하여 파송합니다.

- 다 음 -

1. 임시 당회장 : 강희창 목사 (서초교회 당회장) 끝.

노 회 장 이 성 수  
서 기 이 요 한



=====  
박노철 목사 측  
헌법상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세울 수 없다며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을  
서울강남노회에 접수  
...  
최초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하여  
요청하였던  
강희창 목사를  
새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강희창 목사 (서초교회)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이 선고되어 당회장 결원 상태가 된 이후 곧바로 당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다가 2020년 10월 20일(화) 가을노회 직전 서울교회 회복에 도움이 될 목사님을 파송하겠다고 당초 과반수 당회원이 요청한 목사가 아닌, 교단 내 헌법 전문가로서 총회 서기까지 역임한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이신 권용평 목사를 파송한 바 있다.

사실 권용평 목사는 서울교회가 최초 설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분쟁 초기 당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으로 거명되거나 법원 직무대행자선임청구 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추천되었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서울교회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에 비록 자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노회의 파송 결정을 수용하였고 권용평 목사는 임시당회장 부임 이후 당회원들과 협력하여 교회 회복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어 당회원들과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존경을 받아 오셨다.

그러던 중 이번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갑자기 헌법상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세울 수 없다며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이 서울강남노회에 접수되었고, 이 청원소식을 들은 권용평 목사는 서울교회와 관련하여 이번 정기노회에서 어떤 조그만 불이익이라도 초래되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 먼저 사임서를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강남노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은퇴목사인 권용평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지만 혹시라도 이번 정기노회에서 불필요한 법적 시비로 또다른 서울교회 분쟁의 불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긴급히 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3월 23일(화) 최초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하여 요청하였던 강희창 목사를 새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준 것이다.

당회는 지난 25일(목) 오후, 새로이 파송된 임시당회장 강희창 목사의 인도로 임시당회를 열어 우선 필요한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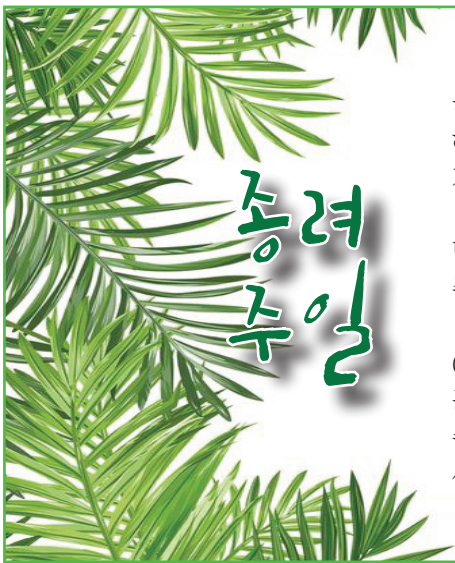
새로이 파송된 강희창 목사와 함께 이후 필요한 서울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씨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오늘, 3월 28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레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레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레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12:12-15)



##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9일(월)-4월 3일(토)까지 새벽 5시, 본당 2층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 3월 29일(월)-4월 3일(토)까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새벽 5시에 본당 2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聖) 금요일'(4월 2일)은 해 있을 동안 금식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바라며 오후 8시, '성(聖) 금요일 저녁기도회(온라인 예배)'가 있을 예정이며 김의창 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성도들의 많

은 참여 바란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3. 29(월) : 서명철 목사
- 3. 30(화) : 서명철 목사
- 3. 31(수) : 장석남 목사
- 4. 1(목) : 장석남 목사
- 4. 2(금) : 조원영 목사
- 4. 3(토) : 조원영 목사

### 성(聖) 금요일 저녁기도회

- 4. 2(금) : 김의창 목사 (온라인 예배)

## 다음 주일은 부활절

### 4월 4일(주일) 부활절 새벽기도회(온라인 예배) 주일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음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킨다.

4월 4일(주일) 새벽 5시 '부활절 새벽기도회(온라인 예배)'가 있으며 전재홍 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마땅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올해도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고 다만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 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린

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오승민 집사)의 솔리스트들이 부활절 절기찬양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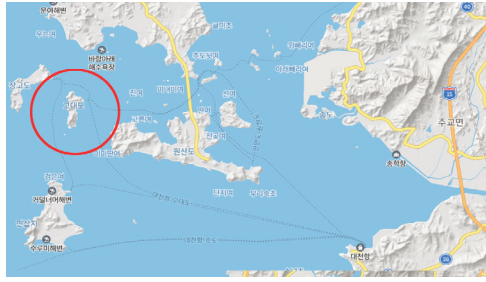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

- ① 승리의 입성(주일, 막 11:1-11)
- ② 성전을 두 번째 청결케 하심 (월요일, 막 11:15-26)
- ③ 유대인들과 마지막 논쟁 : (화요일, 막 11:27-12:40) 예수의 공생애 마지막 날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 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 번째 기름 부음 (화요일 저녁, 눅 7:3-50,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막 14:3-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 (화요일 밤, 막 14:10-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 (복음서에는 언급이 없으나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 수요일)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먹다 (목요일 오후, 막 14:12, 31)
- ⑨ 예수가 겔세마네에서 체포되심 (목요일 밤, 막 14:32-52)
- ⑩ 증경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야간 재판 (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 18:12-13)
- ⑪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야간 재판 (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 14:53-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 (금요일 오전, 눅 22:66-71)
- ⑬ 빌라도 앞에 나타남(금요일 오전, 눅 23:25)
- ⑭ 예수가 온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 앞에 서다 (금요일 오전, 눅 23:6-12)
- ⑮ 빌라도 앞에 두 번째 서다 (금요일 오전, 눅 23:13-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막 15:16-41)
- ⑰ 무덤에 매장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으로 안식일 시작 직전, 막 15:42-47)
- ⑱ 무덤에서 지내다(토요일)
- ⑳ 부활하시다(주일 새벽, 막 16:1-8)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 우리말 성경의 역사 1

## - 귀츨라프 -



귀츨라프가 선교를 시작한 충청남도 고대도



1832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교회와 기념비



귀츨라프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다음은 매 주일 심우진 목사가 강의하는 신앙강좌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순례자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832년에 선교의 뜻을 품은 화란선교회 소속의 독일인 귀츨라프(Gützlaff)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으로 중국에 오게

된다.

회사 소속의 배,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선교여행을 가던 중 풍랑으로 우연히 조선의 충청도 고대도에 정박하여 한 달간 머물며 선교를 시작한다. 이때 한국인 서생 양이와 함께 주기도문(마 6:9-13)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 본문의 최초의 우리말

번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한글 주기도문은 소실되어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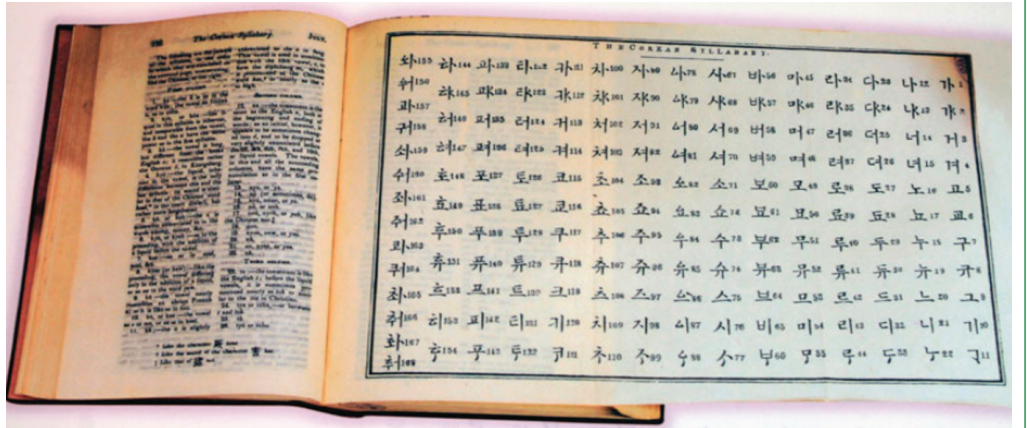
다만 1832년 'Chinese Repository'라는 중국의 선교잡지(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의 정보 공유를 위해 발간된 잡지)의 11월 호에 그가 기고한 한글 도표를 참고해 볼 때 매우 훌륭한 수준의 한글 주기도문으로 추측될

뿐이다.

또한 2005년 고대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칼 귀츨라프를 기념하는 고대도교회가 건립되었고 2층 귀츨라프 기념실에는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다음 주 계속)

요약정리 : 김애리 집사(편집부)



주기도문을 최초로 번역한 귀츨라프가 'Chinese Repository'라는 중국의 선교잡지에 소개한 한글 (1832년 12월)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9일	월	삼상 13-15		시 66-73	
3월30일	화	삼상 16-17		시 74-80	
3월31일	수	삼상 18-20		시 81-91	
4월1일	목	삼상 21-24		시 92-102	
4월2일	금	삼상 25-28		시 103-107	
4월3일	토	삼상 29-31		시 108-118	
4월4일	주일	삼하 1-3		시 119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 3일(토) 한국기독교 학술원 15차 정기이사회를 갖는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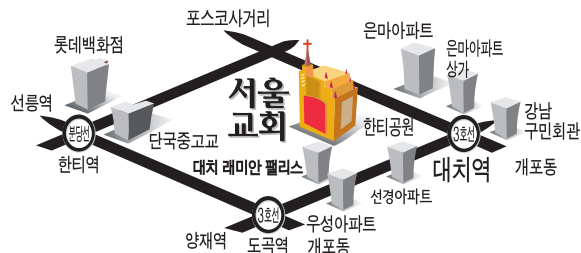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를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